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2015. **12**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사무엘상 · 미가 · 마태복음 · 누가복음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12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71 구역모임·소그룹 성경공부(G.B.S.)
- 93 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12

2015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13교구	2 2교구	3 17교구	4 6교구	5 전교인
6 전교인	7 전교인	8 10교구	9 1교구	10 11교구	11 7교구	12 전교인
13 전교인	14 전교인	15 12교구	16 14교구	17 9교구	18 8교구	19 전교인
20 전교인	21 전교인	22 15교구	23 4교구 성탄 축하 찬양의 밤	24 16교구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25 3교구 성탄절 감사예배	26 전교인
27 전교인 제6차 학습세례식	28 전교인	29 18교구	30 5교구	31 1교구		

교회 주요 일정

12월 23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4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5일

성탄절 감사예배

12월 27일

제6차 학습세례식

12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신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아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 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 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 묵상

매일묵상

매일묵상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테후서 3:15)



격분, 괴로움

본문 사무엘상 1:1~8 찬송가 372장

>>> 본문 해설

레위 지파의 자손(대상 6:34~38)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2절).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에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는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는 제물의 분깃을 갑절로 줬습니다(4절).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임신을 못함과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날마다 격분하게 함으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6절). 자식을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나에게 매년 브닌나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노라고 격분시켰습니다(7절). 그로 인해 울면서 먹지도 않는 한나를 향해 엘가나는 “당신은 열 아들보다 내게 낫지 아니하냐?”하며 위로해 주지만 한나의 고통과 괴로움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모두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도 충분히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러한 나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이 좌절될 수 있지만 고난 중에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으로 산다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 역시 격분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은혜의 자리에 서 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을 낳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바꿔 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늘 계시길 소원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인생의 어려운 고통 중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광의 구원의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본문 사무엘상 1:9~18 찬송가 363장

>>> 본문 해설

제사를 드린 후에 사람들은 먹고 마셨지만 괴로워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한나는 여호와와의 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9절). 괴로울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기도할 수 있음이 한나의 인생에 은혜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노라' (11절) 고 서원을 했습니다. 한나의 서원은 단순히 아들을 드린다는 서원을 넘어서 임신을 못함으로 여호와께 저주 받은 인생이 되는 것만은 면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한나는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를 향해 영적 무지함에 빠진 엘리는 한나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없었기에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13절). 영적 무지함에 빠진 엘리는 내면의 깊은 간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엘리의 말에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다만 자신의 상황과 내면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말에 엘리는 아무런 생각과 감정이 없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했습니다(17절). 하나님의 일하심은 엘리의 영적인 무지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믿음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한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불편합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인생의 고통의 시기를 만날 때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 가운데 일의 해결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본문 사무엘상 1:19~28 찬송가 50장

» 본문 해설

본문의 내용은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서원하며 기도하였던 장면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9절에 핵심적인 말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녀의 형편과 아픔,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셨고, 그녀의 기도를 생각하셨습니다. 19절에 한나와 엘가나가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서원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한나는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 받은 사람들은 예배자와 경배자로 서 있게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 믿음으로 동참한 한나는 여호와께서 생각하사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사무엘이라 이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입니다(20절).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생각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그의 서원대로 사무엘이 젖 떼 후에 여호와께 올라가 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자신이 이곳에서 기도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 응답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여호와께 서원한대로, 그리고 남편에게 말한 대로 아이 사무엘을 실로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나아가(24절)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우리를 늘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죄의 도망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본문 사무엘상 2:1~11 찬송가 25장

>>> 본문 해설

본문은 한나가 올려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브닌나로 인해 격동함과 원통함이 있었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사무엘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의 핵심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이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대적 브닌나로 인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한나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흑암 중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감사의 원인이라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했던 것입니다.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주 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2절). 여호와는 죽이시고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진능하신 분이시오,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짓임을 고백하면서 세계들을 그것들 위에 세우시는 절대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6~8절).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일의 해결을 넘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

본문 사무엘상 2:12~21 찬송가 204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엘리의 두 아들이고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18절에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엘리의 자녀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태는 조금씩 그 모습과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엘리의 두아들도 제사장의 신분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여 고기를 제물로 태우기도 전에 사환에게서 빼앗았습니다(17절).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며 여호와를 섬겼습니다(18, 21절).

이것은 엘리와 한나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의 영적 무지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 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29~30절) 삶의 결과가 두아들이 이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면 한나의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자라게 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삶의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과 주인으로 섬겨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존중히 여기고

본문 사무엘상 2:22~36 찬송가 542장

>>> 본문 해설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참으로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출 40:13~15). 그러나 본문은 이 영원한 언약이 불량한 제사장들에 의해 일시에 파기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 줍니다. 엘리의 가문은 결국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36절)"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대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아비아달을 끝으로 제사장직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왕상 2:26~27 참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아비아달의 대제사장직을 승계한 인물이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후손인 사독이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모압 신들을 섬기고 모압 여자들과 간통하던 때 미디안 여인과 동침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민 25:1~13). 회막에서 수종 들던 여인과 동침하는 간음죄를 범한 자들의 후손이 결국에는 죄를 단호하게 다스렸던 사람의 후손에게 제사장 자리를 빼앗겼다는 사실은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보여 줍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언약이 성취되느냐 파기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존중하느냐 멸시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본문 사무엘상 3:1~9 찬송가 505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닫지 못한 사무엘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7절).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당대의 대표적인 불량자였던 홉니와 비느하스의 악덕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2:12). 그러므로 이 표현이 사무엘에게도 적용되었다는 것은 그가 비록 기도로 낳은 자녀이고 신앙으로 양육되었으며 제사장 후보생으로 토라를 배우고 늘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1절) 시대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인물임을 알려줍니다.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잠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줄 모르고 엘리만 찾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거듭 부르십니다. 적용이 안돼서 요즘 성경묵상이 힘드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한 엘리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듣고 돌이키게 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본문 사무엘상 3:10~21 찬송가 274장

>>> 본문 해설

레위인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눈이 어두운 엘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등불”을 살피고 검사하는(출 27:20 참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성막 안에 밤새도록 켜 놓는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빛이 없는 밤에도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꺼지면 안 되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이건 그 내용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전해야 합니다. 더구나 어린 사무엘로서는 엘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15절) 그는 세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늘 평안하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란 것을 직감하고도 엘리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지체를 통해 나를 책망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충고를 듣는 지도자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불만세력으로만 매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때가 늦어 그 무엇으로도 속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소홀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후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돌아서십시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오늘도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본문 사무엘상 4:1~11 찬송가 274장

>>> 본문 해설

성경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더 많은 자식을 얻게 된 한나와 열망으로 치달는 엘리 집안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던 반면에,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실하지 못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죽고 충실한 제사장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사무엘이 자라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겸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것도 당당히 모든 백성의 인정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순종의 결과요, 그 어머니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역사를 죄악으로 덮은 사탄은 멸망당하며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빛이 비취지리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사무엘의 조언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벨리알의 아들들, 삼상 2:12)의 가르침을 따랐고 상식과 습관에 따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를 철저히 치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패배하고, 희생당한 숫자만 삼만 명이었습니다(10절). 여기에 더 큰 비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11절). 당신도 혹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쳐두고 살아감으로 가슴 아픈 실패를 맛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삶에서 떠나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본문 사무엘상 4:12~22 찬송가 276장

>>> 본문 해설

우리는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신 일을 여러 가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불량자였던 홉니와 비느하스는 사실 악마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를 죄와 어둠으로 물들인 벨리알의 아들들을 죽이시고, 신앙의 인물인 사무엘을 세워 다윗의 길을 예비케 하십니다. 홉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사 시대에 백성들을 죄로 사로잡았던 벨리알의 아들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로 이끄실 준비를 다 마쳐놓으시고 왜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상식과 벨리알의 아들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블레셋의 위협을 하나님이 직접 제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대적 블레셋을 찾아가신 일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각주

*벨리알(Belial): 무가치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구약성경에서는 아들, 딸, 자녀들, 사람 등의 접두어와 결합하여 극한 사람을 의미한다(신 13:13, 삿 19:22, 삼상 10:10:27). 신약에서는 사탄,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후 6:15, 살후 2:3).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세상의 가치에 동요하여 믿음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다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었드려져

본문 사무엘상 5:1~12 찬송가 352장

》》 본문 해설

당시 사람들은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면 곧 그 나라의 신이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 다곤 옆에 놓아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곤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물고기 형상을 가진 신으로 얼굴과 손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스돗의 신, 곧 다곤의 얼굴과 손을 끊고 물고기의 몸통만을 남기신 사건은 다곤 신이 블레셋에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다만 물고기 형상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그들을 지켜주는 신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 시대로 이끌기 위해 옛 시대의 주인이었던 벨리알의 아들들, 즉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는 아직 다곤이라는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사 삼손을 통해 두 개의 다곤 신전 중 가사에 있는 것을 파괴해 버리셨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남아 있는 사탄의 세력까지 완전히 뿌리 뽑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아스돗까지 찾아가셔서 다곤 신을 멸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죽음의 세력을 궤멸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실 것을 예언하신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떠나 계실 때에도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저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거룩한 뜻과 행동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

본문 사무엘상 6:1~9 찬송가 73장

》》 본문 해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면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복종하지 않으면 출애굽 당시 애굽인과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5~6절).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가셔서 승리를 얻고 돌아오신 사건은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한 사건, 곧 출애굽 사건을 재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과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곤신 처형 사건 및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두 동일한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이 스스로 적진에 들어가 적장을 쳐부순 후에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증거하고 영광을 얻으신 사건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사탄을 쳐부순 승리를 쟁취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 계실 때에도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사탄을 벌하시는 때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제 마음의 메마름과 연약함에 상관없이 항상 승리하시는 주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본문 사무엘상 6:10~7:2 찬송가 322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은 약 7개월 전에 전쟁터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그들 곁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고 기쁨과 환호성으로 화답했습니다(13절). 이에 대한 화답으로 벤세메스 주민들은 수레가 멈춘 곳에서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14절). 하지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수소가 아닌, 암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노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레 1:3). 그들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기쁨에만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어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실로에 있던 성막은 파괴되었습니다. 비록 법궤는 돌아왔지만 이를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될지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들의 호기심으로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임했고, 7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19절).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법궤는 기랴터아림에서 20년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과정과 방법에 실수가 많아,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만 샀을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과 뜻대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본문 사무엘상 7:3~17 찬송가 384장

>>> 본문 해설

법궤가 기랴트아림에 머문 지도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었고, 그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3절). 우상들과 다른 신들에게서 마음을 돌이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대각성 집회를 가졌고, 백성들은 이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6절).

하지만 이때 블레셋은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일을 두고 정치적 음모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군인들을 소집해서 미스바로 쳐들어왔습니다(7절).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백성들의 간구 앞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혼돈에 빠뜨려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10절). 이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기념비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승리, 우리의 도움이 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

본문 사무엘상 8:1~9 찬송가 382장

» 본문 해설

사무엘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과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사무엘은 늙고 그의 리더십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고 백성들의 불신만 가져왔습니다(3절). 마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호니와 비느하스를 보는 듯 했습니다(삼상 2장). 이러한 까닭에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4~5절). 이 과정에서 그들은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정통치를 거부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요구 앞에 마음이 심히 상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좋을지 기도했습니다(6절). 이 기도에 대해 이전에 왕정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허락하셨습니다(7~9절, 민 24:7, 17 신 17:14~20).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헛된 신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노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불의한 모습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인생을 바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본문 사무엘상 8:10~22 찬송가 284장

>>> 본문 해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고 있는 왕권에 대해 비난하셨습니다. 왕을 가리켜 '취하는 자'로 묘사하시면서, 그가 세금, 징병, 압수 등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오히려 힘들게 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은 취하는 분이 아닌, 언제나 주시는 분이셨음을 이스라엘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이를 통해 백성이 철저히 왕의 노예가 될 것을 동시에 경고했습니다(17절). 이미 애굽에서 노예생활의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자청해서 또 다시 자신들의 왕 앞에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왕을 세우는 일은 결국 노예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들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군대장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하면서(20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스스로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호 13:10~11).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욕심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장래에 하나님을 거부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매사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준수한 소년이라

본문 사무엘상 9:1~10 찬송가 86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처럼 준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집안 배경이나 신체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손색이 없는 자였습니다(2절). 베냐민 지파의 유지인 기스의 아들로서 용모도 매우 준수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만족할만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적인 모습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삼상 16:7). 어느 날,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귀들을 찾지 못하는 무능한 목자로 사울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그들의 영원한 왕, 영원한 목자로 섬기며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과 무지함으로 인간 왕, 인간 목자를 요구한 결과는 암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외모적으로는 뛰어나 보이고 준수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능력, 티끌과 같은 존재임이 드러나고 맙니다. 우리는 최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목자이신 그분의 인도와 통치를 받은 삶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도하심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본문 사무엘상 9:11~21 찬송가 350장

>>> 본문 해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선 일을 계기로 사무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도착하기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윽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1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명을 가리켜, “내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16절).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의 지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21절). 이 마음을 사울은 끝까지 지켰어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처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고, 직분과 지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만남과 섬김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위해 살아야 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부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과 온유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 주리라

본문 사무엘상 9:22~27 찬송가 323장

>>> 본문 해설

사울은 사무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약 30여 명이나 되는 초대된 사람들 중에 사무엘은 사울을 제일 귀한 자리에 앉히고 후히 대접했습니다(23~24절).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한 것입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한 성읍의 집으로 갔습니다(25절). 그들은 밤새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일, 이스라엘의 현재와 앞으로의 상황, 하나님의 계획, 왕으로 세움 받을 사울에게 거는 기대 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주의시켰을 것입니다. 이 대화를 마친 후, 사무엘은 이른 아침에 사울과 그의 종을 깨워 성 끝으로 갔습니다. 성 끝에 도착한 사무엘은 종을 먼저 보낸 뒤에, 사울과 단 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27절).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위임 받은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 명예, 재력 등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므로

본문 사무엘상 10:1~16 찬송가 191장

>>> 본문 해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난 이후 이스라엘 나라에 지도자로 세워질 것을 예언합니다. 사울은 기름부음을 받고 사무엘의 명령대로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시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6절). 이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듯 하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6절). 또한 사울에게도 확신을 주시기 위해 이러한 징조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6절).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또한 “그 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9절)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를 보내는 동안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잘못된 간구였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시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왕을 보내주셨나요? 바로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담당하셨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중 오늘 사울은 인간 왕으로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바르게 드러내야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왕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야 할까요?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매일 매순간을 살며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걱정
에 통치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자가 나오리라

본문 미가 5:1~5 찬송가 120장

》 본문 해설

선지서를 분량으로 대,소선지서를 구분할 때 미가서는 소선지서입니다. 또한 선지서를 시기적으로 분류할 때 미가서는 바벨론 포로 이전 선지서입니다. 때문에 미가서는 바벨론으로 인한 멸망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의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서 1~4장까지는 미가서가 '요단,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임하였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묵시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견자들이 백성들을 피로, 죄악으로 인도하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들은 당시 뇌물을 위해, 대가를 위해, 돈을 위해 교훈하고, 점을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된 위로를 했습니다(미가 3장).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강력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함께 미가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은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위로이자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은 '딸 군대'와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는' 치욕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 받을 때를 기록합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앞으로 구원의 성취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사람에게에서 날 것이며, 그는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 사람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2~5절).

하나님께서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땅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부터 나타난 구원의 성취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아들을 보내시어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성취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본문 마태복음 1:18~25 찬송가 122장

» 본문 해설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하면서도 그가 누구이신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자체를 설명하면서 그의 나심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18절). 그리고 그 성령의 잉태를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서 '납편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9절). 그리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20절).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예수'라 하는 것을 설명하며 그 이름의 뜻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풀이해 주셨습니다(21절).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오신 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줄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주의 사자는 '임마누엘'이라 알려줍니다. 이 이름을 히브리어 '임+마누+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함께+우리+와+하나님'이라는 번역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뜻을 가진다고 설명해 주십니다(23절).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한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이라는 자기고백을 할 수 없는 자에게는, 즉 구원 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기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성도인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본문 마태복음 2:1~12 찬송가 119장

》》 본문 해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임명을 받고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1절). 또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당시 유대 땅의 왕이 있었음에도 동방의 박사들이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동방에 나타난 별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른 것입니다.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러 왔고, 지금 현직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이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3절).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지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선지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고, 그가 너희들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게 된 헤롯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습니다. 즉 나타난 때를 알게 되면 탄생했던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7절). 9절은 사라졌던 별이 문득 나타나 박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기에게 왕께 경배하듯 경배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아기가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에게 가지 못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를 감당케 하시려고 대속 제물로 오신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도, 죄에게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성취를 위해 오신 것을 함께 기억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본문 누가복음 1:26~38 찬송가 114장

>>> 본문 해설

오늘 내용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6개월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저자 누가는 바로 그때가 약혼한 상태이고, 분명히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27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입니다(26절). 그러자 마리아는 놀라고, 무서워 합니다. 그러자 또 다시 천사는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입니다(31절).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인한 잉태를 강조하기 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과 다윗의 왕위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는 처녀인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 아이를 임신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34절). 그러자 천사는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임신하게 되었다고 벌써 6개월이 지나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은 구약 시대 부터 말씀하셨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시며, 한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중보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천사를 통해 역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분명 마리아 자신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이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그리스도를 통해 이땅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계획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땅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소식에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본문 누가복음 2:1~14 찬송가 112장

>>> 본문 해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의 직업에 걸맞는 세밀한 기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 역시도 세밀한 내용으로 담겨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를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즉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그 때에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호적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거할 때, 해산할 때가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첫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뉘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7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표적'이라고 말하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어집니다(13절).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말씀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면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며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느끼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돈, 명예, 성공과 보장된 삶에서 느끼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높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알려준 '메시야'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찬양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매일의 삶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본문 사무엘상 10:17~27 찬송가 384장

» 본문 해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이스라엘의 새 왕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았던 때,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왕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간구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왕을 세운다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 왕을 세운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행한 것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그저 인간 왕으로 세워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울의 어떠한 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짐파라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그에게 달려가 그를 데리고 나오도록 인도합니다. 그 이후 사무엘은 모든 백성 앞에서 사울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이가 없다' 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서 설명하고, 책에 기록하도록 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이 흠어지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간구를 잘못되었으며, 그 간구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자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보내며 나 자신을 비추어보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나의 간구, 나의 바람, 나의 24시간을 주님 앞에서 철저히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결정과 나의 소망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지 깊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주님이 원하시는 말, 행동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로 살게하옵소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된 사울

본문 사무엘상 11:1~15 찬송가 400장

》》 본문 해설

오늘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길르앗 아베스를 포위한 암몬 족속을 격퇴함으로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사건과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으나 즉위식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4~5절). 그런데 이 때 왕으로서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에 정착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아베스를 침공한 것입니다(1~3절).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이스라엘 땅에 사자를 보내어 순식간에 33만의 군사를 소집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 암몬 족속을 격퇴하는 위기 대응력과 통솔력을 보여주었고(6~11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 길갈에서 왕으로 공식 즉위하게 되었습니다(12~15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징계하실지 언정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 즉 성령 충만할 때 그는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하게 맞서 싸웠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가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고, 늘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본문 사무엘상 12:1~15 찬송가 322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12장 1~25절까지 이어지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 중 전 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였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자신의 자리 매김을 확실히 해서 물러나야 할 시기에 미련 없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사무엘은 자신의 고별설교에 앞서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선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증명합니다(1~5절). 그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끊임없는 구원의 은총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줄기찬 배반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6~11절). 또한 현재의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또다시 배반하고 조상들의 어리 석음을 쫓아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통해 구원을 기대한 과오를 지적합니다(12~14절). 아무리 그들이 구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15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먼저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구어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녕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면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을 포기하고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과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해야 합니다.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이 그만 하시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는 청지기의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본문 사무엘상 12:16~25 찬송가 384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12장 1~25절까지 이어지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 중 하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2장 전체의 내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의식(歷史意識)을 고취시키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 역사를 반추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선조가 행하였던 불행한 실수를 다시금 범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왕이 하나님께 다같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모두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원칙을 거듭 제시하고 있습니다(19~25절).

이것은 자신의 책망과 권고로 낙담한 백성들의 눈을 돌려서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앞을 내다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사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무엘이 주지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결코 열방의 왕과 같은 성격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통치 수단일 뿐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세운 인간 왕보다 앞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야만 했고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과 저주의 기준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나

본문 사무엘상 13:1~12 찬송가 314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3장 1~12절까지 말씀은 사울 왕의 첫 번째 불순종과 그에 따른 사무엘의 일차 왕위 폐위 예언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약 2년 쯤 되던 때의 일로서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압제하던 블레셋의 게바에 있던 수비대를 요나단을 선두로 기습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1~4절). 사울이 블레셋에게 먼저 전쟁을 일으킨 군사적 모험을 감행한 것은 믿음의 행위라기 보다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은 아니었지만 실질적 지배를 당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켰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집전을 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8절). 이 7일간의 기간은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고 적국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여 이탈하는 것을 보자(5~7절) 사울은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마침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9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동시에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레놓고는 사울은 자신이 행한 죄악된 행동을 묻는 사무엘에게 그것이 정당한 행위였다고 뻔뻔하게 변명을 합니다.

사울은 왕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여기면서 뻔뻔하게 변명하는 죄악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준엄하신 책망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한 가장 큰 죄는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 욕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도라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죄악된 모습은 없습니까?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성도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겸손한 종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본문 사무엘상 13:13~23 찬송가 335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3장 13~23절은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3~14절까지는 사울의 범죄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망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드렸던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한 것임을 지적하고 사울의 나라가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5~23절까지의 내용은 사무엘상 14장 23절까지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믁마스 전투에 대한 이야기 중 블레셋과 맞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이 얼마나 블레셋과 비교하여 얼마나 초라한 상태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온 블레셋은 보병을 제외하고도 병거가 삼만이나 되고 마병도 육천이나 되었습니다(5절).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 수는 처음 모였던 3000명 중에 다 도망가고 이제는 겨우 육백 여명에 불과합니다(15절). 거기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의 철기 통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여서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9~22절).

누가 보아도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전쟁의 주관자 되시기에 칼이나 창 또는 군사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면서 다음 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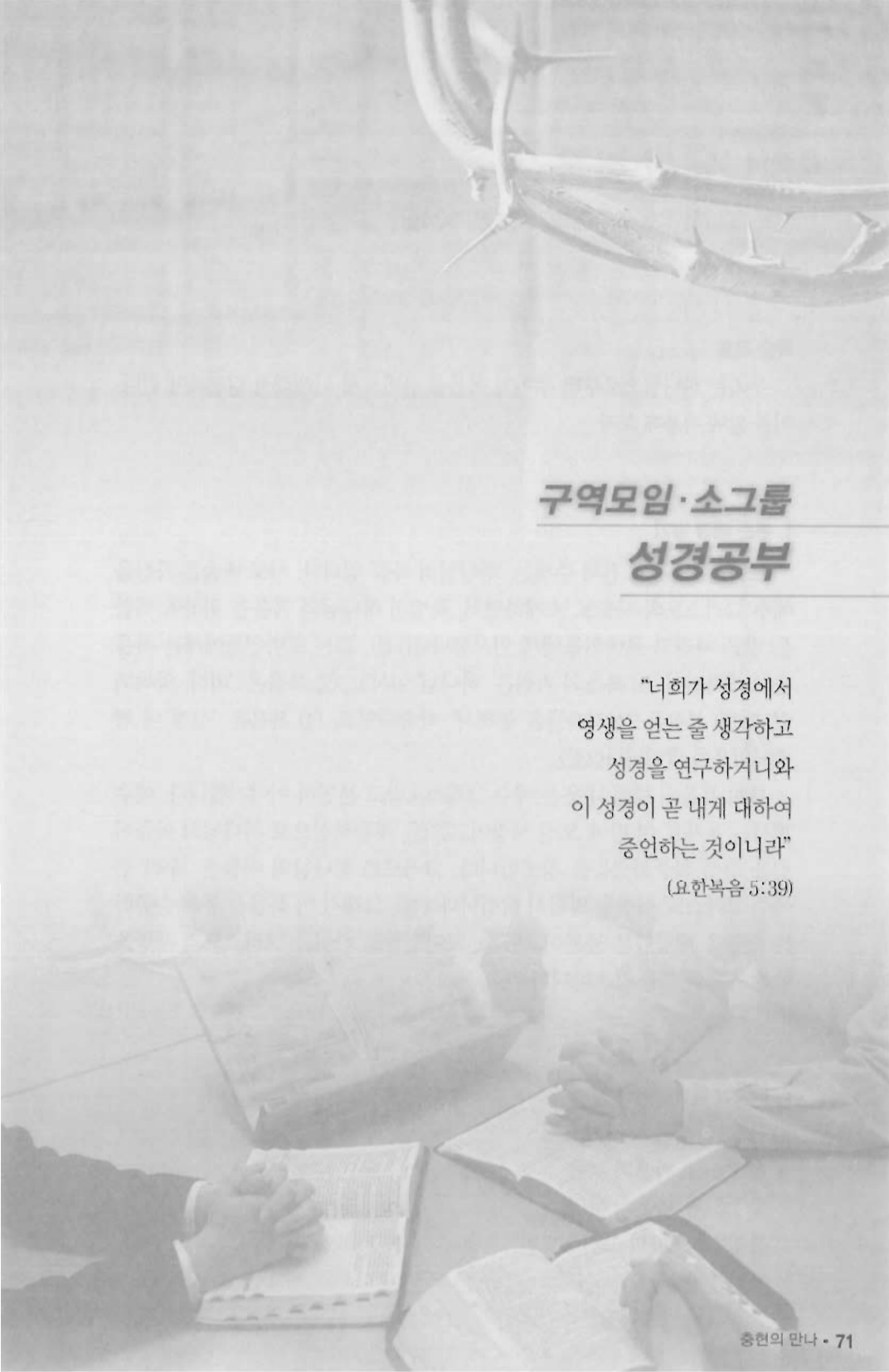
사울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였다면 그는 영원한 왕조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명예로운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할 때 그는 그 명예로운 자리를 빼앗기에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 이름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망령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오직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행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역모임·소그룹

성경공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하나님의 복음

본문 로마서 1:1~7 찬송가 94장, 104장

학습 목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를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로마서 1:1~7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라고 로마인들에게 인사합니다(1절). 그는 로마인들에게는 복음을 소개하면서, (1)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 이시고, (2) 복음은 '미리' 약속되었고, (3)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었고, (4) 복음은 '성경'에 약속되었음을 밝힙니다(2절).

특히 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고(3절),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확증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명확히 밝힙니다(4절).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순종하는 신앙을 배양함은 물론이고(6절), 로마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공유할 것을 강조합니다(7절).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롬 1:1 바울의 자기소개

롬 1:2~4 바울과 복음

롬 1:5~6 바울의 사명

롬 1:7 로마의 그리스도인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바울과 복음(롬 1:2~4)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구약성경에 바탕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즉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은 사도로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책임을 주님께 직접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행 9:1~19 갈 1:16).

Q. 복음의 기원은 누구십니까?(2절)

Q. 복음의 중심은 누구십니까?(4절)

(b) 바울의 사명(롬 1:5~6)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신분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1) 예수를 믿고, (2)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밝힙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서 그는 사도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기에,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Q.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으로 부름 받았습니까?(5절)

Q.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6절)

4. 본문 적용하기

Q. '하나님의 복음'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은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성 명	기도제목

외울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롬 1:6)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능력

본문 로마서 1:8~17 찬송가 494장, 533장

학습 목표

우리는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로마서 1:8~17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점이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본문을 통해 밝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1)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2)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16~17절). 이 복음을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합 2:4),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받는 선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롬 1:8~12 감사와 기도

롬 1:13~15 바울의 로마방문 계획

롬 1:16~17 로마서의 주제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감사와 기도(롬 1:8~12)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다는 명성을 얻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8절). 비록 바울은 그들 대부분을 알지 못했고,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9절). 그래서 곧 로마를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10절). 이로써 바울은 그들을 방문하여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견고케 하여, 그들로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 방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11~13절).

Q.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점을 감사하고 있습니까?(8절)

Q.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8절)

(b) 로마서의 주제(롬 1:16~17)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원한다는 바울의 핵심적인 논증이 드러납니다.

Q. 바울이 정의한 복음은 무엇입니까?(16절)

Q.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17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이 복음을 깨닫고, 변한 삶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감사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확장을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외울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진노(1)

본문 로마서 1:18~23 찬송가 287장, 481장

학습 목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로마서 1:18~23의 전체 주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요일 4:8). 하지만 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격분하십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신성, 권위, 성품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의, 즉 죄에 대해 나타난다고 단언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21절), 교묘히 하나님을 모방하며(21~22절),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체해서(23~25절) 피조물이 창조주 대신 숭배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롬 1:18~20 죄의 기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롬 1:21~23 사람의 죄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죄의 기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롬 1:18~20)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경과 불의, 즉 죄에 대해 나타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기로 선택했을 때에는 죄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Q.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를 드러내십니까?(18절)

Q.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20절)

(b) 사람의 죄(롬 1:21~23)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재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자체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하신 세계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에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합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Q. 죄로 물든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21~23절)

Q. 죄로 물든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23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까? 이를 끊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외국인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 할지니라”(롬 1:20)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진노(2)

본문 로마서 1:24~32 찬송가 488장, 493장

학습 목표

우리는 진노 가운데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한 삶을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로마서 1:24~32의 전체 주제는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선적으로 인간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유기의 형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구속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유기의 형벌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첫 발걸음이 됩니다. 비록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수단입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롬 1:24~31 죄의 결과

롬 1:32 죄의 기소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죄의 결과(롬 1:24~31)

죄로 물든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숭배함으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맙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더러움에 내어주시는 이유는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이 더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Q. 하나님이 죄를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3~24절)

Q.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자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29~31절)

(b) 죄의 기소(롬 1:32)

바울은 (1)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2) 죄에 대해 하나님이 벌주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Q. 죄의 결과(형벌)는 무엇입니까?(32절)

Q.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32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잘못과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십니까? 이를 회개하고 고치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은 세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를 경험하고 전하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성명	기도제목

외울 말씀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롬 1:32)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심판

본문 로마서 2:1~5 찬송가 255장, 274장

하나님의 심판

학습 목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을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로마서 2:1~5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히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됨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막는 죄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것이 없는, 즉 이방인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바울이 열거한 많은 죄들을 동일하게 범하고 있었습니다 (롬 1:29~31).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통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다가를 심판 날에 가해질 진노를 스스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5절).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롬 2:1~4 바울의 고발

롬 2:5 진노의 날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바울의 고발(롬 2:1~4)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들은 이방인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분석함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죄들을 범하고 살기에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Q. 남을 판단하는 행위가 그릇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절)

Q.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1~3절)

(b) 진노의 날(롬 2:5)

자기 의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잠 26:12). 유대인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임할 것을 강조합니다.

Q.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5절)

Q.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5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당신에게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성 명	기도제목

와울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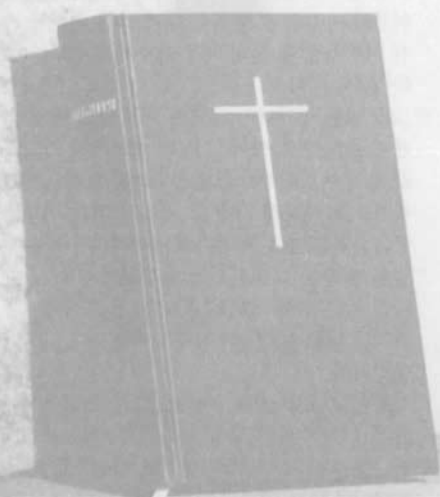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롬 2:1)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ER GORDON

성경공부 본문말씀

- 한글 94P
- 영문 108P



사무엘상 1장

- ¹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 ²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 ³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와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 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 ⁵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 ⁶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 ⁷ 매년 한나가 여호와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 ⁸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 ⁹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 ¹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 ¹¹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 ¹²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 ¹³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

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¹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¹⁵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¹⁶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¹⁷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¹⁸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¹⁹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²⁰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²¹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²²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²³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 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²⁴ 젖을 떼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축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²⁵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²⁶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

호와게 기도하던 여자라

21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라

22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2장

1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심이니이다

3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이다 여호와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4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터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9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고 하니라

11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3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 그것으로 뱀비레나 술에나 큰 술에나 가마에 찢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도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8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9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걸음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0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2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들노라

24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

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물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

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얹되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15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와 집의 문을 열었으니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16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7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8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19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20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상 4장

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백에 진 쳤더니
 2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라
 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5 여호와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6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와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9 너희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엷드러진 자가 삼만 명이었으며
 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2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13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매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14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15 그 때에 엘리의 나이가 구십팔 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

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⁷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⁸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사십 년이었더라

⁹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¹⁰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¹¹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¹²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5장

¹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예벧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²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³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이만 남았더라

⁵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⁶ 여호와와 그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시라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⁷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⁸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⁹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와 그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시라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¹⁰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¹¹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¹²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6장

¹ 여호와와 그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일곱 달이라

²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³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

음이니라

5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산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6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7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것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매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 여호와와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벤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0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몇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매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 여호와와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으니

12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3 벤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14 수레가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와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15 레위인은 여호와와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16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애그론으로 돌아갔더라

17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애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18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와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둘은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에 오늘까지 있더라

19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와 궤를 들어나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20 벤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21 전령들을 기랏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와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무엘상 7장

1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시리라

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²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³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⁵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⁶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벧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⁷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⁸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 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⁹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¹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¹¹ 해마다 벧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¹²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저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저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상 8장

¹ 사무엘이 늙으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²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³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⁵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⁶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⁷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⁸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⁹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¹⁰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¹¹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저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¹²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¹³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¹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¹⁵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

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0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1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2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13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14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15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16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상 9장

1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3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라 하매
 4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 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5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6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7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8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러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9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11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12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13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려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성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14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15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17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¹⁸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
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
소서 하니

¹⁹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
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
게 말하리라

²⁰ 사울 전에 있는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
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
라

²¹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²²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
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삼십 명 가량이었더라

²³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²⁴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
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
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
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²⁵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
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²⁶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
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²⁷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
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
더라

¹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
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
름을 부으샤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
하셨느냐

²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
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
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
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
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
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
이요

³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불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으려고 베엘로 올라
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⁴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
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⁵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
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
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
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
이요

⁶ 내게는 여호와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
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
라

⁷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
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⁸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
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⁹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¹⁰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
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¹¹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
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
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
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무엘상 10장

- ¹² 그 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 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 ¹³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 ¹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 ¹⁵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 ¹⁶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 ¹⁷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 ¹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였거늘
- ¹⁹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 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 ²⁰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뿔쳤고
- ²¹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뿔쳤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뿔쳤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 ²²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 ²³ 그들이 달려 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 ²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 ²⁵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

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²⁶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²⁷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무엘상 11장

¹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²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³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⁵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⁶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⁷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와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⁸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⁹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떠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¹⁰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

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¹¹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 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¹²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¹³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¹⁴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¹⁵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상 12장

¹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²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³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⁴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⁵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⁶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

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⁷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⁸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곳에 살게 하셨으나

⁹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¹⁰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¹¹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¹²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움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¹³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¹⁴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마는

¹⁵너희가 만일 여호와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와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¹⁶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¹⁷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나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¹⁸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

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⁹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¹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¹¹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¹²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¹³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¹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¹⁵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상 13장

¹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에

² 이스라엘 사람 삼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이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므마스라와 벳엘 산에 있게 하고 일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벳나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³ 요나단이 계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사가 삼만이요 마병이 육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므마스에 진 치매

⁶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⁷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⁸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⁹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¹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¹¹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¹²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¹³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¹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¹⁵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벳나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육백 명 가량이라

¹⁶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벳나민 계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므마스에 진 쳤더니

¹⁷ 노략꾼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¹⁸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

로 향하였더라

²⁰ 그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²¹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쟁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²² 곧 그들이 쟁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²³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²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므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미가 5장 1~5절

¹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²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³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⁴ 그가 여호와와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묵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⁵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군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마태복음 1장 18~25절

¹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¹⁹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²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태려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²¹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²²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²³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²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²⁵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 1~12절

¹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²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³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⁵ 이르되 유대 베들레헬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⁶ 또 유대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⁷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⁸ 베들레헬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⁹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¹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¹¹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

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¹² 그들은 꿈에 해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 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장 26~38절

²⁶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²⁷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²⁸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²⁹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한 인가 생각하매

³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³¹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³²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³³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³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³⁵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³⁶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³⁷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³⁸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매

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⁵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⁶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⁷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⁸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⁹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¹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¹¹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¹²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¹³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¹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14절

¹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²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³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1 Samuel 1:1~28

- 1 There was a certain man from Ramathaim, a Zuphite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whose name was Elkanah son of Jeroham, the son of Elihu, the son of Tohu, the son of Zuph, an Ephraimite.
- 2 He had two wives; one was called Hannah and the other Peninnah. Peninnah had children, but Hannah had none.
- 3 Year after year this man went up from his town to worship and sacrifice to the LORD Almighty at Shiloh, where Hophni and Phinehas, the two sons of Eli, were priests of the LORD.
- 4 Whenever the day came for Elkanah to sacrifice, he would give portions of the meat to his wife Peninnah and to all her sons and daughters.
- 5 But to Hannah he gave a double portion because he loved her, and the LORD had closed her womb.
- 6 And because the LORD had closed her womb, her rival kept provoking her in order to irritate her.
- 7 This went on year after year. Whenever Hannah went up to the house of the LORD, her rival provoked her till she wept and would not eat.
- 8 Elkanah her husband would say to her, "Hannah, why are you weeping? Why don't you eat? Why are you downhearted? Don't I mean more to you than ten sons?"
- 9 Once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in Shiloh, Hannah stood up. Now Eli the priest was sitting on a chair by the doorpost of the LORD's temple.
- 10 In bitterness of soul Hannah wept much and prayed to the LORD.
- 11 And she made a vow, saying, "O LORD Almighty, if you will only look upon your servant's misery and remember me, and not forget your servant but give her a son, then I will give him to the LORD for all the days of his life, and no razor will ever be used on his head."
- 12 As she kept on praying to the LORD, Eli observed her mouth.
- 13 Hannah was praying in her heart, and her lips were moving but her voice was not heard. Eli thought she was drunk
- 14 and said to her, "How long will you keep on getting drunk? Get rid of your wine."
- 15 "Not so, my lord," Hannah replied, "I am a woman who is deeply troubled. I have not been drinking wine or beer;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 16 Do not take your servant for a wicked woman; I have been praying here out of my great anguish and grief."
- 17 Eli answered, "Go in peace, and may the God of Israel grant you what you have asked of him."
- 18 She said, "May your servant find favor in your eyes." Then she went her way and ate something, and her face was no longer downcast.
- 19 Early the next morning they arose and worshiped before the LORD and then went back to their home at Ramah. Elkanah lay with Hannah his wife, and the LORD remembered her.
- 20 So in the course of time Hannah conceived and gave birth to a son. She named him Samuel, saying, "Because I asked the LORD for him."
- 21 When the man Elkanah went up with all his family to offer the annual sacrifice to the LORD and to fulfill his vow,
- 22 Hannah did not go. She said to her husband, "After the boy is weaned, I will take him and present him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ve there always."
- 23 "Do what seems best to you," Elkanah her husband told her. "Stay here until you have weaned him; only may the LORD make good his word." So the woman stayed at home and nursed her son until she had weaned him.
- 24 After he was weaned, she took the boy with her, young as he was, along with a three-year-old bull, an ephah of flour and a skin of wine, and brought him to the house of the LORD at Shiloh.
- 25 When they had slaughtered the bull, they brought the boy to Eli,
- 26 and she said to him, "As surely as you live, my lord, I am the woman who stood here beside you praying to the LORD.
- 27 I prayed for this child, and the LORD has granted me what I asked of him.
- 28 So now I give him to the LORD. For his whole life he will be given over to the

LORD." And he worshiped the LORD there.

1 Samuel 2:1~36

- 1 Then Hannah prayed and said: "My heart rejoices in the LORD; in the LORD my horn is lifted high. My mouth boasts over my enemies, for I delight in your deliverance.
- 2 "There is no one holy like the LORD; there is no one besides you; there is no Rock like our God.
- 3 "Do not keep talking so proudly or let your mouth speak such arrogance, for the LORD is a God who knows, and by him deeds are weighed.
- 4 "The bows of the warriors are broken, but those who stumbled are armed with strength.
- 5 Those who were full hire themselves out for food, but those who were hungry hunger no more. She who was barren has borne seven children, but she who has had many sons pines away.
- 6 "The LORD brings death and makes alive; he brings down to the grave and raises up.
- 7 The LORD sends poverty and wealth; he humbles and he exalts.
- 8 He raises the poor from the dust and lifts the needy from the ash heap; he seats them with princes and has them inherit a throne of honor. "For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re the LORD's; upon them he has set the world.
- 9 He will guard the feet of his saints, but the wicked will be silenced in darkness. "It is not by strength that one prevails;
- 10 those who oppose the LORD will be shattered. He will thunder against them from heaven; the LORD will judge the ends of the earth. "He will give strength to his king and exalt the horn of his anointed."
- 11 Then Elkanah went home to Ramah, but the boy ministered before the LORD under Eli the priest.
- 12 Eli's sons were wicked men;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 13 Now it was the practice of the priests with the people that whenever anyone offered a sacrifice and while the meat was being boiled, the servant of the priest would come with a three-pronged fork in his hand.
- 14 He would plunge it into the pan or kettle or caldron or pot, and the priest would take for himself whatever the fork brought up. This is how they treated all the Israelites who came to Shiloh.
- 15 But even before the fat was burned, the servant of the priest would come and say to the man who was sacrificing, "Give the priest some meat to roast; he won't accept boiled meat from you, but only raw."
- 16 If the man said to him, "Let the fat be burned up first, and then take whatever you want," the servant would then answer, "No, hand it over now; if you don't, I'll take it by force."
- 17 This sin of the young men was very great in the LORD's sight, for they were treating the LORD's offering with contempt.
- 18 But Samuel was ministering before the LORD -- a boy wearing a linen ephod.
- 19 Each year his mother made him a little robe and took it to him when she went up with her husband to offer the annual sacrifice.
- 20 Eli would bless Elkanah and his wife, saying, "May the LORD give you children by this woman to take the place of the one she prayed for and gave to the LORD." Then they would go home.
- 21 And the LORD was gracious to Hannah; she conceived and gave birth to three sons and two daughters. Meanwhile, the boy Samuel grew up in the presence of the LORD.
- 22 Now Eli, who was very old, heard about everything his sons were doing to all Israel and how they slept with the women who served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 23 So he said to them, "Why do you do such things? I hear from all the people about these wicked deeds of yours.
- 24 No, my sons; it is not a good report that I hear spreading among the LORD's people.
- 25 If a man sins against another man, God may mediate for him; but if a man sins against the LORD, who will intercede for him?" His sons, however, did not listen to their father's rebuke, for it was the LORD's will to put them to death.
- 26 And the boy Samuel continued to grow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the LORD and with men.
- 27 Now a man of God came to Eli and said to

him, "This is what the LORD says: 'Did I not clearly reveal myself to your father's house when they were in Egypt under Pharaoh?' 28 I chose your father out of all the tribes of Israel to be my priest, to go up to my altar, to burn incense, and to wear an ephod in my presence. I also gave your father's house all the offerings made with fire by the Israelites. 29 Why do you scorn my sacrifice and offering that I prescribed for my dwelling? Why do you honor your sons more than me by fattening yourselves on the choice parts of every offering made by my people Israel?' 30 "Therefore the LORD, the God of Israel, declares: 'I promised that your house and your father's house would minister before me forever.' But now the LORD declares: 'Far be it from me!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but those who despise me will be disdained. 31 The time is coming when I will cut short your strength and the strength of your father's house, so that there will not be an old man in your family line 32 and you will see distress in my dwelling. Although good will be done to Israel, in your family line there will never be an old man. 33 Every one of you that I do not cut off from my altar will be spared only to blind your eyes with tears and to grieve your heart, and all your descendants will die in the prime of life. 34 "And what happens to your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will be a sign to you - they will both die on the same day. 35 I will raise up for myself a faithful priest, who will do according to what is in my heart and mind. I will firmly establish his house, and he will minister before my anointed one always. 36 Then everyone left in your family line will come and bow down before him for a piece of silver and a crust of bread and plead, 'Appoint me to some priestly office so I can have food to eat.'"

1 Samuel 3:1~21

1 The boy Samuel ministered before the LORD under Eli. In those days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there were not many visions.

- 2 One night Eli, whose eyes were becoming so weak that he could barely see, was lying down in his usual place.
- 3 The lamp of God had not yet gone out, and Samuel was lying down in the temple of the LORD, where the ark of God was.
- 4 Then the LORD called Samuel. Samuel answered, "Here I am."
- 5 And he ran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But Eli said, "I did not call; go back and lie down." So he went and lay down.
- 6 Again the LORD called, "Samuel!" And Samuel got up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My son," Eli said, "I did not call; go back and lie down."
- 7 Now Samuel did not yet know the LORD: The word of the LORD had not yet been revealed to him.
- 8 The LORD called Samuel a third time, and Samuel got up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Then Eli realized that the LORD was calling the boy.
- 9 So Eli told Samuel, "Go and lie down, and if he calls you, say, 'Speak,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So Samuel went and lay down in his place.
- 10 The LORD came and stood there, calling as at the other times, "Samuel! Samuel!" Then Samuel said,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 11 And the LORD said to Samuel: "See, I am about to do something in Israel that will make the ears of everyone who hears of it tingle.
- 12 At that time I will carry out against Eli everything I spoke against his family -- from beginning to end.
- 13 For I told him that I would judge his family forever because of the sin he knew about; his sons made themselves contemptible, and he failed to restrain them.
- 14 Therefore, I swore to the house of Eli, 'The guilt of Eli's house will never be atoned for by sacrifice or offering.'
- 15 Samuel lay down until morning and then opened the doors of the house of the LORD. He was afraid to tell Eli the vision,
- 16 but Eli called him and said, "Samuel, my

son." Samuel answered, "Here I am."

17 "What was it he said to you?" Eli asked. "Do not hide it from me. May God deal with you, be it ever so severely, if you hide from me anything he told you."

18 So Samuel told him everything, hiding nothing from him. Then Eli said, "He is the LORD; let him do what is good in his eyes."

19 The LORD was with Samuel as he grew up, and he let none of his words fall to the ground.

20 And all Israel from Dan to Beersheba recognized that Samuel was attested as a prophet of the LORD.

21 The LORD continued to appear at Shiloh, and there he revealed himself to Samuel through his word.

1 Samuel 4:1~22

1 And Samuel's word came to all Israel. Now the Israelites went out to fight against the Philistines. The Israelites camped at Ebenezer, and the Philistines at Aphek.

2 The Philistines deployed their forces to meet Israel, and as the battle spread, Israel was defeated by the Philistines, who killed about four thousand of them on the battlefield.

3 When the soldiers returned to camp, the elders of Israel asked, "Why did the LORD bring defeat upon us today before the Philistines? Let us bring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from Shiloh, so that it may go with us and save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4 So the people sent men to Shiloh, and they brought back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lmighty, who is enthroned between the cherubim. And Eli's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were there with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5 When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came into the camp, all Israel raised such a great shout that the ground shook.

6 Hearing the uproar, the Philistines asked, "What's all this shouting in the Hebrew camp?" When they learned that the ark of the LORD had come into the camp,

7 the Philistines were afraid. "A god has come into the camp," they said. "We're in trouble! Nothing like this has happened before."

8 Woe to us! Who will deliver us from the hand of these mighty gods? They are the gods who struck the Egyptians with all kinds of plagues in the desert.

9 Be strong, Philistines! Be men, or you will be subject to the Hebrews, as they have been to you. Be men, and fight!"

10 So the Philistines fought, and the Israelites were defeated and every man fled to his tent. The slaughter was very great; Israel lost thirty thousand foot soldiers.

11 The ark of God was captured, and Eli's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died.

12 That same day a Benjamite ran from the battle line and went to Shiloh, his clothes torn and dust on his head.

13 When he arrived, there was Eli sitting on his chair by the side of the road, watching, because his heart feared for the ark of God. When the man entered the town and told what had happened, the whole town sent up a cry.

14 Eli heard the outcry and asked, "What is the meaning of this uproar?" The man hurried over to Eli,

15 who was ninety-eight years old and whose eyes were set so that he could not see.

16 He told Eli, "I have just come from the battle line; I fled from it this very day." Eli asked, "What happened, my son?"

17 The man who brought the news replied, "Israel fled before the Philistines, and the army has suffered heavy losses. Also your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are dead, and the ark of God has been captured."

18 When he mentioned the ark of God, Eli fell backward off his chair by the side of the gate. His neck was broken and he died, for he was an old man and heavy. He had led Israel forty years.

19 His daughter-in-law, the wife of Phinehas, was pregnant and near the time of delivery. When she heard the news that the ark of God had been captured and that her father-in-law and her husband were dead, she went into labor and gave birth, but was overcome by her labor pains.

20 As she was dying, the women attending her said, "Don't despair; you have given birth to a son." But she did not respond or pay any attention.

21 She named the boy Ichabod, saying, "The glory has departed from Israel" -- because of the capture of the ark of God and the deaths of her father-in-law and her husband.

22 She said, "The glory has departed from Israel, for the ark of God has been captured."

1 Samuel 5:1~12

1 After the Philistines had captured the ark of God, they took it from Ebenezer to Ashdod.

2 Then they carried the ark into Dagon's temple and set it beside Dagon.

3 When the people of Ashdod rose early the next day, there was Dagon, fallen on his face on the ground before the ark of the LORD! They took Dagon and put him back in his place.

4 But the following morning when they rose, there was Dagon, fallen on his face on the ground before the ark of the LORD! His head and hands had been broken off and were lying on the threshold; only his body remained.

5 That is why to this day neither the priests of Dagon nor any others who enter Dagon's temple at Ashdod step on the threshold.

6 The LORD's hand was heavy upon the people of Ashdod and its vicinity; he brought devastation upon them and afflicted them with tumors.

7 When the men of Ashdod saw what was happening, they said,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must not stay here with us, because his hand is heavy upon us and upon Dagon our god."

8 So they called together all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and asked them, "What shall we do with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They answered, "Have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moved to Gath." So they moved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9 But after they had moved it, the LORD's hand was against that city, throwing it into a great panic. He afflicted the people of the city, both young and old, with an outbreak of tumors.

10 So they sent the ark of God to Ekron. As the ark of God was entering Ekron, the people of Ekron cried out, "They have brought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around to us to kill us and our people."

11 So they called together all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and said, "Send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away; let it go back to its own place, or it will kill us and our people." For death had filled the city with panic; God's hand was very heavy upon it.

12 Those who did not die were afflicted with tumors, and the outcry of the city went up to heaven.

1 Samuel 6:1~21

1 When the ark of the LORD had been in Philistine territory seven months,

2 the Philistines called for the priests and the diviners and said, "What shall we do with the ark of the LORD? Tell us how we should send it back to its place."

3 They answered, "If you return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do not send it away empty, but by all means send a guilt offering to him. Then you will be healed, and you will know why his hand has not been lifted from you."

4 The Philistines asked, "What guilt offering should we send to him?" They replied, "Five gold tumors and five gold ra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Philistine rulers, because the same plague has struck both you and your rulers."

5 Make models of the tumors and of the rats that are destroying the country, and pay honor to Israel's god. Perhaps he will lift his hand from you and your gods and your land.

6 Why do you harden your hearts as the Egyptians and Pharaoh did? When he treated them harshly, did they not send the Israelites out so they could go on their way?

7 "Now then, get a new cart ready, with two cows that have calved and have never been yoked. Hitch the cows to the cart, but take their calves away and pen them up.

8 Take the ark of the LORD and put it on the cart, and in a chest beside it put the gold objects you are sending back to him as a guilt offering. Send it on its way,

9 but keep watching it. If it goes up to its own territory, toward Beth Shemesh, then the LORD has brought this great disaster on us. But if it does not, then we will know that it was not his hand that struck us and that it

happened to us by chance."

10 So they did this. They took two such cows and hitched them to the cart and penned up their calves.

11 They placed the ark of the LORD on the cart and along with it the chest containing the gold rats and the models of the tumors.

12 Then the cows went straight up toward Beth Shemesh, keeping on the road and lowing all the way; they did not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followed them as far as the border of Beth Shemesh.

13 Now the people of Beth Shemesh were harvesting their wheat in the valley, and when they looked up and saw the ark, they rejoiced at the sight.

14 The cart came to the field of Joshua of Beth Shemesh, and there it stopped beside a large rock. The people chopped up the wood of the cart and sacrificed the cows as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15 The Levites took down the ark of the LORD, together with the chest containing the gold objects, and placed them on the large rock. On that day the people of Beth Shemesh offered burnt offerings and made sacrifices to the LORD.

16 The five rulers of the Philistines saw all this and then returned that same day to Ekron.

17 These are the gold tumors the Philistines sent as a guilt offering to the LORD -- one each for Ashdod, Gaza, Ashkelon, Gath and Ekron.

18 And the number of the gold rats wa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hilistine towns belonging to the five rulers -- the fortified towns with their country villages. The large rock, on which they set the ark of the LORD, is a witness to this day in the field of Joshua of Beth Shemesh.

19 But God struck down some of the men of Beth Shemesh, putting seventy of them to death because they had looked into the ark of the LORD. The people mourned because of the heavy blow the LORD had dealt them,

20 and the men of Beth Shemesh asked, "Who can stand in the presence of the LORD, this holy God? To whom will the ark go up from here?"

21 Then they sent messengers to the people of Kiriath Jearim, saying, "The Philistines have returned the ark of the LORD. Come down and take it up to your place."

1 Samuel 7:1~17

1 So the men of Kiriath Jearim came and took up the ark of the LORD. They took it to Abinadab's house on the hill and consecrated Eleazar his son to guard the ark of the LORD.

2 It was a long time, twenty years in all, that the ark remained at Kiriath Jearim,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mourned and sought after the LORD.

3 And Samuel said to the whole house of Israel, "If you are returning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s, then rid yourselves of the foreign gods and the Ashtoreths and commit yourselves to the LORD and serve him only, and he will deliver you out of the hand of the Philistines."

4 So the Israelites put away their Baals and Ashtoreths, and served the LORD only.

5 Then Samuel said, "Assemble all Israel at Mizpah and I will intercede with the LORD for you."

6 When they had assembled at Mizpah, they drew water and poured it out before the LORD. On that day they fasted and there they confessed, "We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And Samuel was leader of Israel at Mizpah.

7 When the Philistines heard that Israel had assembled at Mizpah,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came up to attack them. And when the Israelites heard of it, they were afraid because of the Philistines.

8 They said to Samuel, "Do not stop crying out to the LORD our God for us, that he may rescue us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9 Then Samuel took a suckling lamb and offered it up as a whole burnt offering to the LORD. He cried out to the LORD on Israel's behalf, and the LORD answered him.

10 While Samuel was sacrificing the burnt offering, the Philistines drew near to engage Israel in battle. But that day the LORD thundered with loud thunder against the Philistines and threw them into such a panic that they were routed before the Israelites.

- 11 The men of Israel rushed out of Mizpah and pursued the Philistines, slaughtering them along the way to a point below Beth Car.
- 12 Then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up between Mizpah and Shen. He named it Ebenezer, saying, "Thus far has the LORD helped us."
- 13 So the Philistines were subdued and did not invade Israelite territory again. Throughout Samuel's lifetime, the hand of the LORD was against the Philistines.
- 14 The towns from Ekron to Gath that the Philistines had captured from Israel were restored to her, and Israel delivered the neighboring territory from the power of the Philistines. And there was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Amorites.
- 15 Samuel continued as judge over Israel all the days of his life.
- 16 From year to year he went on a circuit from Bethel to Gilgal to Mizpah, judging Israel in all those places.
- 17 But he always went back to Ramah, where his home was, and there he also judged Israel. And he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1 Samuel 8:1~22

- 1 When Samuel grew old, he appointed his sons as judges for Israel.
- 2 The name of his firstborn was Joel and the name of his second was Abijah, and they served at Beersheba.
- 3 But his sons did not walk in his ways. They turned aside after dishonest gain and accepted bribes and perverted justice.
- 4 So all the elders of Israel gathered together and came to Samuel at Ramah.
- 5 They said to him, "You are old, and your sons do not walk in your ways; now appoint a king to lead us, such as all the other nations have."
- 6 But when they said, "Give us a king to lead us," this displeased Samuel; so he prayed to the LORD.
- 7 And the LORD told him: "Listen to all that the people are saying to you; it is not you they have rejected, but they have rejected me as their king."
- 8 As they have done from the day I brought them up out of Egypt until this day,

forsaking me and serving other gods, so they are doing to you.

- 9 Now listen to them; but warn them solemnly and let them know what the king who will reign over them will do."
- 10 Samuel told all the words of the LORD to the people who were asking him for a king.
- 11 He said, "This is what the king who will reign over you will do: He will take your sons and make them serve with his chariots and horses, and they will run in front of his chariots.
- 12 Some he will assign to b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fifties, and others to plow his ground and reap his harvest, and still others to make weapons of war and equipment for his chariots.
- 13 He will take your daughters to be perfumers and cooks and bakers.
- 14 He will take the best of your fields and vineyards and olive groves and give them to his attendants.
- 15 He will take a tenth of your grain and of your vintage and give it to his officials and attendants.
- 16 Your menservants and maidservants and the best of your cattle and donkeys he will take for his own use.
- 17 He will take a tenth of your flocks, and you yourselves will become his slaves.
- 18 When that day comes, you will cry out for relief from the king you have chosen, and the LORD will not answer you in that day."
- 19 But the people refused to listen to Samuel.
- "No!" they said. "We want a king over us.
- 20 Then we will be like all the other nations, with a king to lead us and to go out before us and fight our battles."
- 21 When Samuel heard all that the people said, he repeated it before the LORD.
- 22 The LORD answered, "Listen to them and give them a king." Then Samuel said to the men of Israel, "Everyone go back to his town."

1 Samuel 9:1~27

- 1 There was a Benjamite, a man of standing, whose name was Kish son of Abiel, the son of Zeror, the son of Becorath, the son of Aphiah of Benjamin.
- 2 He had a son named Saul, an impressive

young man without equal among the Israelites -- a head taller than any of the others.

- 3 Now the donkeys belonging to Saul's father Kish were lost, and Kish said to his son Saul, "Take one of the servants with you and go and look for the donkeys."
- 4 So he passed through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through the area around Shalisha, but they did not find them. They went on into the district of Shaalim, but the donkeys were not there. Then he passed through the territory of Benjamin, but they did not find them.
- 5 When they reached the district of Zuph, Saul said to the servant who was with him, "Come, let's go back, or my father will stop thinking about the donkeys and start worrying about us."
- 6 But the servant replied, "Look, in this town there is a man of God; he is highly respected, and everything he says comes true. Let's go there now. Perhaps he will tell us what way to take."
- 7 Saul said to his servant, "If we go, what can we give the man? The food in our sacks is gone. We have no gift to take to the man of God. What do we have?"
- 8 The servant answered him again. "Look," he said, "I have a quarter of a shekel of silver. I will give it to the man of God so that he will tell us what way to take."
- 9 (Formerly in Israel, if a man went to inquire of God, he would say, "Come, let us go to the seer," because the prophet of today used to be called a seer.)
- 10 "Good," Saul said to his servant. "Come, let's go." So they set out for the town where the man of God was.
- 11 As they were going up the hill to the town, they met some girls coming out to draw water, and they asked them, "Is the seer here?"
- 12 "He is," they answered. "He's ahead of you. Hurry now; he has just come to our town today, for the people have a sacrifice at the high place."
- 13 As soon as you enter the town, you will find him before he goes up to the high place to eat. The people will not begin eating until he comes, because he must bless the

sacrifice; afterward, those who are invited will eat. Go up now; you should find him about this time."

- 14 They went up to the town, and as they were entering it, there was Samuel, coming toward them on his way up to the high place.
- 15 Now the day before Saul came, the LORD had revealed this to Samuel:
- 16 "About this time tomorrow I will send you a man from the land of Benjamin. Anoint him leader over my people Israel; he will deliver my people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I have looked upon my people, for their cry has reached me."
- 17 When Samuel caught sight of Saul, the LORD said to him, "This is the man I spoke to you about; he will govern my people."
- 18 Saul approached Samuel in the gateway and asked, "Would you please tell me where the seer's house is?"
- 19 "I am the seer," Samuel replied. "Go up ahead of me to the high place, for today you are to eat with me, and in the morning I will let you go and will tell you all that is in your heart."
- 20 As for the donkeys you lost three days ago, do not worry about them; they have been found. And to whom is all the desire of Israel turned, if not to you and all your father's family?"
- 21 Saul answered, "But am I not a Benjamite, from the smallest tribe of Israel, and is not my clan the least of all the clans of the tribe of Benjamin? Why do you say such a thing to me?"
- 22 Then Samuel brought Saul and his servant into the hall and seated them at the head of those who were invited -- about thirty in number.
- 23 Samuel said to the cook, "Bring the piece of meat I gave you, the one I told you to lay aside."
- 24 So the cook took up the leg with what was on it and set it in front of Saul. Samuel said, "Here is what has been kept for you. Eat, because it was set aside for you for this occasion, from the time I said, 'I have invited guests.'" And Saul dined with Samuel that day.
- 25 After they came down from the high place

to the town, Samuel talked with Saul on the roof of his house.

26 They rose about daybreak and Samuel called to Saul on the roof, "Get ready, and I will send you on your way." When Saul got ready, he and Samuel went outside together.

27 As they were going down to the edge of the town, Samuel said to Saul, "Tell the servant to go on ahead of us" -- and the servant did so -- "but you stay here awhile, so that I may give you a message from God."

1 Samuel 10:1~27

1 Then Samuel took a flask of oil and poured it on Saul's head and kissed him, saying, "Has not the LORD anointed you leader over his inheritance?"

2 When you leave me today, you will meet two men near Rachel's tomb, at Zelzah on the border of Benjamin. They will say to you, 'The donkeys you set out to look for have been found. And now your father has stopped thinking about them and is worried about you. He is asking, "What shall I do about my son?"'

3 "Then you will go on from there until you reach the great tree of Tabor. Three men going up to God at Bethel will meet you there. One will be carrying three young goats, another three loaves of bread, and another a skin of wine.

4 They will greet you and offer you two loaves of bread, which you will accept from them.

5 "After that you will go to Gibeah of God, where there is a Philistine outpost. As you approach the town, you will meet a procession of prophets coming down from the high place with lyres, tambourines, flutes and harps being played before them, and they will be prophesying.

6 The Spirit of the LORD will come upon you in power, and you will prophesy with them; and you will be changed into a different person.

7 Once these signs are fulfilled, do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for God is with you.

8 "Go down ahead of me to Gilgal. I will surely come down to you to sacrifice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but you

must wait seven days until I come to you and tell you what you are to do."

9 As Saul turned to leave Samuel, God changed Saul's heart, and all these signs were fulfilled that day.

10 When they arrived at Gibeah, a procession of prophets met him;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in power, and he joined in their prophesying.

11 When all those who had formerly known him saw him prophesying with the prophets, they asked each other, "What is this that has happened to the son of Kish? Is Saul also among the prophets?"

12 A man who lived there answered, "And who is their father?" So it became a saying: "Is Saul also among the prophets?"

13 After Saul stopped prophesying, he went to the high place.

14 Now Saul's uncle asked him and his servant, "Where have you been?" "Looking for the donkeys," he said. "But when we saw they were not to be found, we went to Samuel."

15 Saul's uncle said, "Tell me what Samuel said to you."

16 Saul replied, "He assured us that the donkeys had been found." But he did not tell his uncle what Samuel had said about the kingship.

17 Samuel summoned the people of Israel to the LORD at Mizpah

18 and said to them,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I brought Israel up out of Egypt, and I delivered you from the power of Egypt and all the kingdoms that oppressed you.'

19 But you have now rejected your God, who saves you out of all your calamities and distresses. And you have said, 'No, set a king over us.' So now present yourselves before the LORD by your tribes and clans."

20 When Samuel brought all the tribes of Israel near, the tribe of Benjamin was chosen.

21 Then he brought forward the tribe of Benjamin, clan by clan, and Matri's clan was chosen. Finally Saul son of Kish was chosen. But when they looked for him, he was not to be found.

22 So they inquired further of the LORD, "Has the man come here yet?" And the LORD said, "Yes, he has hidden himself among the

baggage."

- 23 They ran and brought him out, and as he stood among the people he was a head taller than any of the others.
- 24 Samuel said to all the people, "Do you see the man the LORD has chosen? There is no one like him among all the people." Then the people shouted, "Long live the king!"
- 25 Samuel explained to the people the regulations of the kingship. He wrote them down on a scroll and deposited it before the LORD. Then Samuel dismissed the people, each to his own home.
- 26 Saul also went to his home in Gibeah, accompanied by valiant men whose hearts God had touched.
- 27 But some troublemakers said, "How can this fellow save us?" They despised him and brought him no gifts. But Saul kept silent.

1 Samuel 11:1~15

- 1 Nahash the Ammonite went up and besieged Jabesh Gilead. And all the men of Jabesh said to him, "Make a treaty with us, and we will be subject to you."
- 2 But Nahash the Ammonite replied, "I will make a treaty with you only on the condition that I gouge out the right eye of every one of you and so bring disgrace on all Israel."
- 3 The elders of Jabesh said to him, "Give us seven days so we can send messengers throughout Israel; if no one comes to rescue us, we will surrender to you."
- 4 When the messengers came to Gibeah of Saul and reported these terms to the people, they all wept aloud.
- 5 Just then Saul was returning from the fields, behind his oxen, and he asked, "What is wrong with the people? Why are they weeping?" Then they repeated to him what the men of Jabesh had said.
- 6 When Saul heard their words,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in power, and he burned with anger.
- 7 He took a pair of oxen, cut them into pieces, and sent the pieces by messengers throughout Israel, proclaiming, "This is what will be done to the oxen of anyone who does not follow Saul and Samuel." Then the terror of the LORD fell on the

people, and they turned out as one man.

- 8 When Saul mustered them at Bezek, the men of Israel numbered three hundred thousand and the men of Judah thirty thousand.
- 9 They told the messengers who had come, "Say to the men of Jabesh Gilead, 'By the time the sun is hot tomorrow, you will be delivered.'" When the messengers went and reported this to the men of Jabesh, they were elated.
- 10 They said to the Ammonites, "Tomorrow we will surrender to you, and you can do to us whatever seems good to you."
- 11 The next day Saul separated his men into three divisions; during the last watch of the night they broke into the camp of the Ammonites and slaughtered them until the heat of the day. Those who survived were scattered, so that no two of them were left together.
- 12 The people then said to Samuel, "Who was it that asked, 'Shall Saul reign over us?' Bring these men to us and we will put them to death."
- 13 But Saul said, "No one shall be put to death today, for this day the LORD has rescued Israel."
- 14 Then Samuel said to the people, "Come, let us go to Gilgal and there reaffirm the kingship."
- 15 So all the people went to Gilgal and confirmed Saul as king in the presence of the LORD. There they sacrificed fellowship offerings before the LORD, and Saul and all the Israelites held a great celebration.

1 Samuel 12:1~25

- 1 Samuel said to all Israel, "I have listened to everything you said to me and have set a king over you.
- 2 Now you have a king as your leader. As for me, I am old and gray, and my sons are here with you. I have been your leader from my youth until this day.
- 3 Here I stand. Testify against m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his anointed. Whose ox have I taken? Whose donkey have I taken? Whom have I cheated? Whom have I oppressed? From whose hand have I accepted a bribe to make me shut my eyes?

- If I have done any of these, I will make it right."
- 4 "You have not cheated or oppressed us," they replied. "You have not taken anything from anyone's hand."
- 5 Samuel said to them, "The LORD is witness against you, and also his anointed is witness this day, that you have not found anything in my hand." "He is witness," they said.
- 6 Then Samuel said to the people, "It is the LORD who appointed Moses and Aaron and brought your forefathers up out of Egypt.
- 7 Now then, stand here, because I am going to confront you with evidence before the LORD as to all the righteous acts performed by the LORD for you and your fathers.
- 8 "After Jacob entered Egypt, they cried to the LORD for help, and the LORD sent Moses and Aaron, who brought your forefathers out of Egypt and settled them in this place.
- 9 "But they forgot the LORD their God; so he sold them into the hand of Sisera,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Hazor; and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and the king of Moab, who fought against them.
- 10 They cried out to the LORD and said, 'We have sinned; we have forsaken the LOR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toreths. But now deliver us from the hands of our enemies, and we will serve you.'
- 11 Then the LORD sent Jerub-Baai, Barak, Jephthah and Samuel, and he delivered you from the hands of your enemies on every side, so that you lived securely.
- 12 "But when you saw that Nahash king of the Ammonites was moving against you, you said to me, 'No, we want a king to rule over us' -- even though the LORD your God was your king.
- 13 Now here is the king you have chosen, the one you asked for; see, the LORD has set a king over you.
- 14 If you fear the LORD and serve and obey him and do not rebel against his commands, and if both you and the king who reigns over you follow the LORD your God -- good!
- 15 But if you do not obey the LORD, and if you

rebel against his commands, his hand will be against you, as it was against your fathers.

- 16 "Now then, stand still and see this great thing the LORD is about to do before your eyes!
- 17 Is it not wheat harvest now? I will call upon the LORD to send thunder and rain. And you will realize what an evil thing you did in the eyes of the LORD when you asked for a king."
- 18 Then Samuel called upon the LORD, and that same day the LORD sent thunder and rain. So all the people stood in awe of the LORD and of Samuel.
- 19 The people all said to Samuel, "Pray to the LORD your God for your servants so that we will not die, for we have added to all our other sins the evil of asking for a king."
- 20 "Do not be afraid," Samuel replied. "You have done all this evil; yet do not turn away from the LORD, but ser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 21 Do not turn away after useless idols. They can do you no good, nor can they rescue you, because they are useless.
- 22 For the sake of his great name the LORD will not reject his people, because the LORD was pleased to make you his own.
- 23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fail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teach you the way that is good and right.
- 24 But be sure to fear the LORD and serve him faithfully with all your heart; consider what great things he has done for you.
- 25 Yet if you persist in doing evil, both you and your king will be swept away."

1 Samuel 13:1-23

- 1 Saul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over Israel forty-two years.
- 2 Saul chose three thousand men from Israel; two thousand were with him at Micmash and in the hill country of Bethel, and a thousand were with Jonathan at Gibeah in Benjamin. The rest of the men he sent back to their homes.
- 3 Jonathan attacked the Philistine outpost at Geba, and the Philistines heard about it. Then Saul had the trumpet blown

throughout the land and said, "Let the Hebrews hear!"

4 So all Israel heard the news: "Saul has attacked the Philistine outpost, and now Israel has become a stench to the Philistines." And the people were summoned to join Saul at Gilgal.

5 The Philistines assembled to fight Israel, with three thousand chariots, six thousand charioteers, and soldiers as numerou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They went up and camped at Micmash, east of Beth Aven.

6 When the men of Israel saw that their situation was critical and that their army was hard pressed, they hid in caves and thickets, among the rocks, and in pits and cisterns.

7 Some Hebrews even crossed the Jordan to the land of Gad and Gilead. Saul remained at Gilgal, and all the troops with him were quaking with fear.

8 He waited seven days, the time set by Samuel; but Samuel did not come to Gilgal, and Saul's men began to scatter.

9 So he said, "Bring me the burnt offering and the fellowship offerings." And Saul offered up the burnt offering.

10 Just as he finished making the offering, Samuel arrived, and Saul went out to greet him.

11 "What have you done?" asked Samuel. Saul replied, "When I saw that the men were scattering, and that you did not come at the set time, and that the Philistines were assembling at Micmash,

12 I thought, 'Now the Philistines will come down against me at Gilgal, and I have not sought the LORD's favor.' So I felt compelled to offer the burnt offering."

13 "You acted foolishly," Samuel said. "You have not kept the command the LORD your God gave you; if you had, he would have established your kingdom over Israel for all time.

14 But now your kingdom will not endure; the LORD has sought out a man after his own heart and appointed him leader of his people, because you have not kept the LORD's command."

15 Then Samuel left Gilgal and went up to

Gibeah in Benjamin, and Saul counted the men who were with him. They numbered about six hundred.

16 Saul and his son Jonathan and the men with them were staying in Gibeah in Benjamin, while the Philistines camped at Micmash.

17 Raiding parties went out from the Philistine camp in three detachments. One turned toward Ophrah in the vicinity of Shual,

18 another toward Beth Horon, and the third toward the borderland overlooking the Valley of Zeboim facing the desert.

19 Not a blacksmith could be found in the whole land of Israel, because the Philistines had said, "Otherwise the Hebrews will make swords or spears!"

20 So all Israel went down to the Philistines to have their plowshares, mattocks, axes and sickles sharpened.

21 The price was two thirds of a shekel for sharpening plowshares and mattocks, and a third of a shekel for sharpening forks and axes and for repointing goads.

22 So on the day of the battle not a soldier with Saul and Jonathan had a sword or spear in his hand; only Saul and his son Jonathan had them.

23 Now a detachment of Philistines had gone out to the pass at Micmash.

Micah 5:1~5

1 Marshal your troops, O city of troops, for a siege is laid against us. They will strike Israel's ruler on the cheek with a rod.

2 "But you, Bethlehem Ephrathah, though you are small among the clans of Judah, out of you will come for me one who will be ruler over Israel, whose origins are from of old, from ancient times."

3 Therefore Israel will be abandoned until the time when she who is in labor gives birth and the rest of his brothers return to join the Israelites.

4 He will stand and shepherd his flock in the strength of the LORD, in the majesty of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And they will live securely, for then his greatness will reach to the ends of the earth.

5 And he will be their peace. When the Assyrian invades our land and marches through our fortresses, we will raise against

him seven shepherds, even eight leaders of men.

Matthew 1:18~25

- 18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 19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a righteous man and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 20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 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 22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 23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 -- which means, "God with us."
- 24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ook Mary home as his wife.
- 25 But he had no union with her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gave him the name Jesus.

Matthew 2:1~12

- 1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in Judea, during the time of King Herod, Magi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 2 and asked, "Where is the on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 3 When King Herod heard this he was disturb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 4 When he had called together all the people'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he asked them where the Christ was to be born.
- 5 "In Bethlehem in Judea," they replied, "for this is what the prophet has written:
- 6 "But you,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out of you will come a ruler who will be the shepherd of my people Israel."

- 7 Then Herod called the Magi secretly and found out from them the exact time the star had appeared.
- 8 He sent them to Bethlehem and said, "Go and make a careful search for the child. As soon as you find him, report to me, so that I too may go and worship him."
- 9 After they had heard the king, they went on their way, and the star they had seen in the east went ahead of them until it stoppe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 10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 11 On coming 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his mother Mary, and they bowed down and worshiped him.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s and presented him with gifts of gold and of incense and of myrrh.
- 12 And having been warned in a dream not to go back to Herod, they returned to their country by another route.

Luke 1:26~38

- 26 In the sixth month,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Nazareth, a town in Galilee,
- 27 to a virgin pledged to be married to a man named Joseph, a descendant of David. The virgin's name was Mary.
- 28 The angel went to her and said,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 29 Mary was greatly troubled at his words and wondered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 30 But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 31 You will be with child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 32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 33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 34 "How will this be," Mary asked the angel, "since I am a virgin?"
- 35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So the holy one

-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 36 Even Elizabeth your relative is going to have a child in her old age, and she who was said to be barren is in her sixth month.
- 37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 38 "I am the Lord's servant," Mary answered.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Then the angel left her.

Luke 2:1~14

- 1 In those days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 2 (This was the first census that took place while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 3 And everyone went to his own town to register.
- 4 So Joseph also went up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o Judea, to Bethlehem the town of David, because he belonged to the house and line of David.
- 5 He went there to register with Mary, who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him and was expecting a child.
- 6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 7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place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 8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 9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 10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 11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 12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 13 Suddenly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 appeared with the angel, praising God and saying,
- 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5년 12월

Copyright© 2015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권명옥 · 집필진 | 강은미 주영진 이성환 이범구 김원기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물]